

QS 학문분야 평가서, 11개 세계 순위권

전북대, 농·임학 분야 국내 4위·재료과학 국내 9위 랭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에서 최근 발표한 2022년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5개 대주제 분야 중 2개 분야, 51개 세부 학문 분야 중 11개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작년 QS 아시아대학평가와 세계대학평가서 연이어 국가 거점국립대 2위에 오른 후 대학 경쟁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개 대주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450위권이었던 자연과학 분야가 384위

에 랭크되며 순위가 크게 올랐고 공학/기술 대주제 분야는 400위권에 오르며 작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또한 전북대는 세부 학문분야 평가 중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임학 분야에서 세계 200위권 초반에 오르며 국내 4위에 랭크됐고, 재료과학 분야 역시 세계 200위권 초반, 국내 9위에 오르는 등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작년 세계 300위권이었던 화학공학 분야는 200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며 국내 1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기계/항공/제조공학 국내 10위, 생명과학 국내 11위, 환경과학 국내 12위, 화학 국내 13위, 물리/천문학 국내 13위 등 작년보다 최대 6단계 상승, 학문 분야별 경쟁력을 자랑했다. 특히 작년까지 세계 순위권 밖이었던 환경과학과 컴퓨터/정보과학 분야(국내 17위)는 순위권에 진입했다. 이번에 평가된 전체 51개 세부 학문 분야 중 전북대는 총 11개 분야가 세계 순위권에 진입해 국가거점국립대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도 2019년 8개 순위권 진입에서 작년과 재작년 9개에 이어 올해 11개 학문 분야가 순위권에 진

입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 대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역발전을 이끌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의 행보에 큰 자부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영국 QS가 전 세계 1,54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과 기업계 평판, 논문당 인용수,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측정하는 H-인덱스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은성 기자

“한국사회 교육 불균형 뿌리 뽑겠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정책공약 기자회견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신분대물림과 부모찬스를 ‘공교육 찬스’로 바꾸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현재 한국사회 불균등의 뿌리는 교육 불균등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교육비 감축을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전복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해 중고생 대상 전복형 인터넷 교육방송을 운영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 협력을 통해

방과 후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교육력 향상을 통한 학교차지 완성을 위해 “분권과 자율 중심 학교 자치조례로 민주적 학교운영의 일상화를 지원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로 학생의 미래 역량 및 시민의식 함양으로 행복한 학창시절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남훈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김 예비후보의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강 교수는 지난 개소식에서 “이재명 교육정책으로 전북지역을 살릴 인물”이라며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강 교수는 이재명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북교육콜센터 구축... 5월 2일 개소 앞두고 사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문적인 전화민원 상담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직원 업무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북교육콜센터’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5월 2일 정식 개소를 앞둔 전북교

육콜센터는 오는 29일까지 사전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업무 이해도와 전화상담 품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콜센터의 대표번호는 063-1396(일상교육), 평일 09:00~18:00까지 전문상담인력 3명이 근무한다. 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화로 전북교

육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제공하며, 시기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전·편입학, 학교배치, 지방공무원 임용, 교육급여 등 전문 분야를 집중상담 할 예정이다.

전문상담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 매뉴얼 습득과 업무 전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상담원들은 4월 중 각 부서

를 방문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담당자 대면 연수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화 한 통화로 전라북도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유치원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청 규탄 천막 농성

“교육감 면담 거부·부교육감 불성실한 답변 일관 등에 깊은 분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윤진)는 1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3월 개학과 동시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생과 교사의 확진이 늘어나 학교 운영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도교육청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해왔다. 여러 차례 설명서와 기자회견, 공문 발송과 항의 방문, 전화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인력 확보나 방역업무 부담 해소 등 안정적인 학사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감은 면담을 거부하고 이후 부교육감을 만나라고 해서 4월 11일 부교육감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보급 전담 대체 강사 확대 등 안정적인 학사 지원 종합 대책 ▲방역업무 교사 부담 해소 ▲업무정상화 지금 당장 시행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회수) 처분 취소 ▲돌봄, 방과후 업무부

터 즉시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요구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부교육감은 이미 언론에 공

개된 한시적 기간제 교사 11명 채용과 보결수당 추경 편성을 제외하고는 비상식적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염병 확대 상황에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개학 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교사들이 집단적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현상을 목도하고도 ‘학교의 자생력’을 운운하며 악물러듯 발언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교사 번아웃의 이유 중 하나인 돌봄·방과후 업무 해결 등 오랜 기간 고민할 사항이 있었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치를 완료한 업무 정상화 사안에 대해 부교육감은 기존의 ‘무대책’ 입장을 고수했다. 돌봄 업무 교사들에게 부담시킨 합의를 존중도 모를 만큼 ‘무관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부터 요구안이 성실하게 논의되고 적절히 수용될 때까지 조합원의 결기를 모아 천막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2년 연속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하는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제의 학생들 간 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우석대학교 국제교류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 각 30명씩 총 60명을 모집해 오는 5월부터 WOW!(Wosuk Over Wosuk) 행복



가득, 기쁨가득, 웃음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

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중국 교육부의 중의 합작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세계 32개국 278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실험실 창업 지원 ‘박차’

11개 예비 실험실 창업팀 선정... 최대 6천만원 R&D 연구개발비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 실험실 창업팀을 선정,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단은 올해 사업에 신청한 11개 실험실 중 평가를 거쳐 8개가 1차로 선정됐고, 이 실험실 창업팀을 대상으로 12일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을 가졌다. 창업지원단은 4~5월 중 2차 선정을 통해 4개 내외의 실험실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대는 12개 내외의 실험실을 대상으로 최대 6천만원의 R&D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법인설립비용 지원 등 실험실의 우수기술을 창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지방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5년 연속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사업 연차평가를 통해 최

우수 A등급을 받는 등 남다른 성과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돼 5년간 400여명의 지원금을 확보해 이를 통해 교내 교원 및 연구원 창업가의 안정

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예비, 초기, 도약 창업기업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단순히 실험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학의 청년들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실험실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사업으로 대학의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즈모델 수립부터 연구개발비 지원, 기업 설립 등 창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4월 말부터 2차 모집을 통해 추가 실험실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예비 후보, “안전하고 مطمئن한 안심학교 조성하겠다”

학생 이용 공간 친환경적 개선·모든 교육시설 통합관리 기관 운영 제안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하고 맘(Mom)편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안심학교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실과 휴게실, 화장실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친환경적인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먼지 저감 비타체를 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 신설, 리모델링 시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교육시설은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소 200만 회소 이상 CCTV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위급상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폐교시설을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의 안전 진단과 대응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전북교육시설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 예비후보는 또 실질적인 안전체계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야별 안전체계를 폐교 등 유휴 공간



에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해당 지자체간 연계로 산악안전체험센터, 생활안전체험센터, 수상안전체험센터, 재난안전체험센터, 교통안전체험센터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시설 체험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뿐만 아니라, 등·하교 학생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100% 요철 또는 엘로카펫을 설치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면교체,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 중학생 안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제시했다.

서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행여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며 “아이들이 맘편히 학교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9월 개원 예정... 5월 2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은 도교육청 1층 옛 고객지원실 자리에 300㎡ 규모로, 오는 9월 개원할 예정이다.

보육정원은 25명이며,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자녀 중 만 1세부터 미취학 아동을 보육 대상으로 한다.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개원준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기타 전라북도교육청 및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보육 또는 아동복

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보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이다.

또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주소)이 돼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운영계획서·위탁운영체현황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춰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도교육청 총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5월 4일 제안서 발표 및 심사를 거쳐 5월 6일 최종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고광휘)은 30일까지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도서관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서관 책과 나를 잇다’ 행사에서는 전시 분야로 볼로냐라키아를 수상한 지경에 작가의 ▲그림책과 놀자!를 준비했으며, 회관 특색사업 ‘그림책 원화전 & 책 만들기 1일 학교’ 등도 운영한다. 특히 공연으로 인기 캐릭터 코코몽이 전주교육문화회관에 찾아온

다. 캐릭터 뮤지컬인 ▲병장고 나라의 상징미를 코코몽 공연은 30일 11시, 14시 두 차례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도서관주간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누리집(lib.jtc.gakr/jc)과 인스타그램(@jtc_lib)에 안내돼 있으며, 전화 270-109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